

보도시점    배포 후 즉시 사용    배포    2024. 3. 15.(금)

## 日 도쿄전력, 오염수 4차 방류 재개

- 일본 도쿄전력은 3.15.(금) 새벽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설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15시 49분에 오염수 4차 방류를 재개하였다.
- 3.15.(금) 0시 14분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리히터규모 5.8의 지진이 발생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서 최대 진도 5약(弱)이 관측되었다. 이는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상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상황에 해당하여, 도쿄전력은 0시 33분에 방류를 중단하였으며, 일본 측이 관련 사실을 우리 정부에 곧바로 통보한 바 있다.
- 참고로, 도쿄전력이 실시계획에서 진도 5약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양방출을 정지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는 이유는, 예방적 차원에서 설비를 점검한 후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  - ※ 방류 수동정지를 요하는 자연현상 : 진도 5약 이상의 지진, 쓰나미주의보, 토네이도주의보, 해수위 고조 경보 등
- 도쿄전력은 오염수 처리설비, 희석·방출 설비 등을 점검한 결과, 이상이 없어 오염수 방류를 재개하였다.
- 국제원자력기구(IAEA)는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점검관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, 이번 지진으로 인해 오염수 방출 관련 설비에는 영향이 없다고 언급하였다.
- 우리 정부는 방류 개시 이후 방류 관련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, 국제원자력기구(IAEA) 전문가와 화상회의,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및 원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방류 관련 설비의 안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조실 고용식품의약품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송현수 (044-200-2379)
		담당자	사무관 김량기 (044-200-2380)
<공동>	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	책임자	과 장 정경화 (02-2100-7794)
		담당자	서기관 전 혁 (02-2100-7746)
<공동>	원안위 방사능감시대응팀	책임자	팀 장 정희천 (02-397-7350)
		담당자	사무관 박홍진 (02-397-737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